

지역주의 탈피, 국민적 공감 끌어낼 개혁·통합 매개체 돼야

위기의 새정치민주연합 호남정치 어디로

야권재편의 방향

4·29 재보선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당선으로 촉발된 '호남발 야권 재편' 논의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재보선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에서 문재인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진노(진 노무현)' '비노(비 노무현)'의 대립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호남발 야권 재편' 논의가 정치권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천 의원의 '신당 창당' 가능성도 접어들면서 야권은 4·29 재보선 패배에 따른 거센 후폭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은 자칫 과거 충정도를 기반으로 한 '자민련'처럼 지역주의를 고착시킬 수 있다며 호남이 스스로 고품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이날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역 신당은 후진적인 것으로, 절대 만

새정치 견제 세력 필요 하지만

신당 창당 호남 고립 부를수도

나눠먹기식 계파주의도 금물

들어서는 안된다"면서 "한 때 충정도를 기반으로 한 자민련이란 정당이 있었는데, 그 정당을 만들 당시 창당 인사들이 국회 의원을 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몰라도 국가적으로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호남발 야권 재편 또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천 의원의 역할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야권이 개혁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승룡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는 "천 의원의 새정치연합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과 힘을 합친다고 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겠나?"라면서 "현재로서는 야권재편 등을 논할 것이 아니라 새정치연합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천 의원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천 의원이 야권재편의 전략이나 마인드가 있다면, 새정치연합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화·조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천 의원이 자신을 중심으로 야권재편을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 탓인지, 천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호남신당론'과 관련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너무 나간 이야기"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이어 "인재영입을 통해 내년에 광주에서 경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번 선거의 공약이었다"며 "이것을 '호남 신당', '호남 자민련', '지역주의'로 비난하는데 제 주장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호남 신당론에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천 의원이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어 신당 창당에 나서기 보다는 세력과 함께 야권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권재편 또는 신당창당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야권재편이 이뤄진다면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호남 정신'이 중심되고, 편협한 지역주의와 '나눠먹기식' 계파주의를 철저히 지양해야만 개혁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 총사퇴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당원연대’ 소속 당원들이 6일 국회 정문관에서 “4·29재보선 참패에 책임지고 지도부는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1석이라도 늘리려면 국민동의 거칠 것”

이병석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한국지방신문협회 인터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6일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신중한 모습이었다. 대부분 질문이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이었다.

-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도 있다.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기술적으로 다룬다 보면 미세한 증가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국민의 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

-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 밖에 둔 배경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선거구 조정을 할 경우 임의로 선거구를 조정(계리멘더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 국회는 어떤 경우에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확정안을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는가.
▲공직선거법 제25조 선거구 획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개특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 적어도 하나는 도입해야 농어촌 대표성 축소 보완

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때 반드시 수정 요청이유를 붙이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국회의장을 거쳐 특별히 회부된 선거구 확정안을 최종적으로 가부 결정토록 했고, 통과된 확정안은 본회의에서 수정동의 없이 가부투표만으로 최종 확정토록 했다.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대로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감소 우려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세계적으로 인구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현재 결정은 공직선거법의 상위 개념이다. 농어촌지역 대표성 약화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만큼 특이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 지역대표성 축소의 해결 방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은 집행받을 수 있는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현행 직능별 전문가들에게 배정되는 비례대표제를 지역별 비례대표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부에서 제안하는 양원제는 개헌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일단 논의외 하겠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이 가능한가.
▲개인적으로 이 두 제도 중 적어도 하나는 도입된다고 본다.

-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한 입장은.
▲국민의 열망을 수렴하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문제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 보육대란 급한 불 일단 껐다

지방재정법 개정 149억 확보 올 329억 부족...8월에 '바닥'

두달 연속 광주시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조금을 빌려 '보육대란'을 막았던 광주시교육청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예비비 149억원 가량을 배분받을 것으로 보여 급한 불은 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721억원 중 목적예비비 149억원, 교부금 지자체 243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29억원을 광주시교육청이 자체 확보해야 하는데 부족한 방안이 없어 오는 8월이면 또 다시 보육대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적예비비를 투입하게 되고,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인건이 의결되면 5064억원을 한꺼번에 시·도교육청에 배분한다.

교육부는 7일 전국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목적예비비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목적예비비가 집행되면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는 어느 정도 해소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2개월 분만 편성했다가 지난 3월 예산이 바닥이 났고, 3~4월 두 달간 광주시에 보조금을 빌려 해결했다. '보육대란'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낡은 의자에 위로의 감성을 입히다



(112) 의자

어버이날 즈음이어서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이 자주 난다. 눈가에 넘어지신 후 다친 허리로 꽤 불편해셨던 엄마는 자광이의 도움을 한시도 거부하셨다. "노인 티가 난다"는 것이 이유였다. 신체의 쇠약과 더불어 한 발 한 발 때는 게 험겨워진 상황이 몹시 자존심 상하신 듯하다.

불효자식은 엄마에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흔들의자를 선물했다. 헌신과 희생의 엄마지만 가슴엔 낭만이 가득했다. 상송이나 칸초체도 좋아했고 그 흔들의자에 앉아 오래전 산레모가요제 임상곡인 자니 도렐리의 '리멘시타(눈물 속에 피는 꽃)'를 들으시며 행복해 하곤 하셨다. 흔들의자를 보거나 요즘사람들이 잘 듣지 않게 된 '리멘시타'를 듣는 날이면 엄마가 내 곁에 와 계시다는 강한 느낌이 든다.

지난해 개인전에 소개된 정송규 작가(1944~)의 작품 '나의 친구'(2012년 작)를 처음 본 순간 여러 상념이 밀려들었던 기억이 난다. 50여년 이상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 인체와 모정, 우리 전통의 조각보에서 기원한 화사 하면서도 단순한 채색과 조형의 세계를 펼쳐오고 있는 작가의 많은 작품들을 알고 있지만 이 한 점의 작품 앞에



정송규 작 '나의 친구'

서 유독 발걸음이 멈춰졌다. 엄마의 마지막 친구였던 흔들의자가 겹쳐져 서 있다.

작가는 30여 년 전 구입한 소파가 낡고 닳아졌지만 버릴 수가 없어 골방에 두고 팔레트의 남은 물감으로 한 점 한 점 짙어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킨 것이라고 한다. 작은 점들은 작가 자신의 삶과 그 시간들의 집적이었으리라. 작가는 지금도 그 의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낡은 의자에 위로의 감성을 입혀낸 정송규의 작품을 보면서 마티스의 '안락의자론'을 새겨본다. 마티스는 '화가에 대한 논고'에서 "미술이란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머리를 누일 수 있는 안락의자여야 한다"고 정의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문의처: 노안리식/Karma ICL을 이용한 시술/최초정 인공 수정체/레스토렌즈/레이드를 니버전 인레이

140611-591530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